

문예진흥원 예술극장과 함께 하는 광복 60주년 기념공연

외국의 유명 오페라와 뮤지컬 등이 국내 공연계를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문예진흥원 예술극장은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여 독립운동을 했던 장준하 선생, 일본군 위안부를 소재로 다룬 뮤지컬 <청년 장준하>와 연극 <나비>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두 작품의 공연은 조국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민족혼을 보여준 장준하 선생의 모습과 일제의 만행에 희생당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조국을 잃어버린 지난 시대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뮤지컬 <청년 장준하>

장준하 선생의 삶을 극화한 뮤지컬 <청년 장준하>는 장준하와 33인의 젊은이들이 중국 중동부 지역에 있던 일본군 부대를 탈출, 독립군이 되기 위해 충칭으로 가는 6천리 대장정을 배경으로 연인, 친구, 가족간의 사랑이야기를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다. 이번 공연은 기존의 곡들을 수정하고 재작곡하여 시대의 아픔을 희망과 사랑으로 이겨내려는 청년들의 도전을 더욱 감성적이고 강렬한 음악으로 그려내며, 쇼와 볼거리 위주의 뮤지컬이 아닌 역사적인 인물의 인간적인 면을 강조한 감동으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 ▶ 공연일시: 8월 5일(금)~8월 15일(월)
평일 오후 7시30분 / 토·일·공휴일 오후 3시, 7시30분 / 8일(월) 공연없음
- ▶ 공연장소: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
-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 A석 30,000원(사랑티켓 참가자) / 8월 15일 광복절 기념 특별공연 전석 2만원
- ▶ 공연문의: (02) 722-1467 / www.m-jangjunha.co.kr



극단아리랑 <나비>

2004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 서구인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작품 <나비>는 재미교포 희곡작가 김정미의 <COMFORT WOMEN>이 원작으로, 뉴욕에 이민 온 김윤이 할머니와 손녀 진아, 한국에서 집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위안부 할머니들 사이의 갈등과 화합을 그린 작품이다.

2005 서울연극제 연기상을 수상한 배우 김용선 씨, 실제 정신대 할머니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두 조연 조한희, 윤혜영의 온몸을 던지는 실감나는 정신대 할머니 연기는 관객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로 알게 하고 절대적인 아픔을 넘어서는 감동의 눈물을 선사할 것이다.

- ▶ 공연일시: 8월 4일(목)~8월 15일(월)
화 · 목 오후 7시30분 / 수 · 금 오후 4시, 7시30분 / 토 · 공휴일 오후 3시, 6시 / 일 오후 4시 / 8일(월) 공연없음
- ▶ 공연장소: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소극장
- ▶ 관람료: 일반 20,000원 / 대학생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 사랑티켓 참가작
- ▶ 공연문의: (02) 741-5332 / www.arirangv.co.kr

